

창간 20주년 커버스토리- 불교, 人文과 通하였는가

현대불교 창간 20년 '화엄만다라' 세상 만들겠습니다

# 불교·인문학 만남 시대사상의 새 가치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낯선 문구가 아닙니다. 10년 전만에도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지만 지금은 인문학 대중서가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리고, 강신주 등과 같은 스타 저자들도 생겨났다. 각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도소까지 앞 다퉈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인문학 열풍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잠실 불광사 부설 불광연구소와 조계사 등 도심 사찰들도 사찰 불교대학에 인문학 강좌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으며, 승가교육 과정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행성, 정의평화불교연대의 눈부처학교 등 전문 아카데미들도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을 위한 연구와 담론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불교와 서구철학 간의 학제 간 연구 등을 포함한 응용 불교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이도훈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불교평론〉 22집에 기고한 '21세기 인문학으로서 불교철학의 가능성과 전망' 제하의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욕망 이론 등과 같은 서구 철학 등과 불교 철학의 접점을 모색했다. 이 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선(禪), 욕망이론과 연기론, 정보화 사회와 공(空)이 연결돼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불교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매우 유용하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은 수많은 타자와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더 약한 것들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안내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통섭을 넘어 ‘불교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불교는 절대자를 믿는 다른 종교와

를 바라보며, 또한 불교를 통해 ‘나’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문학으로서 불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인문학 열풍 중이지만 이면에 드러워진 그림자



그림·박구원

## 삶의 근본' 성찰하는 불교와 인문학 맞닿아

## 현실은 '깁깁한 밤길'

## 연구 인력·환경 확충에 중단·대학들 지원 필요

는 달리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불교는 단순히 인간 중심이 아닌 모든 만물과의 상호 존중을 중요시 한다”면서 “이제는 불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불교 인문적 사유를 통해 현대 사회를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인문학은 시대 언어로 불교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여기 나의 눈으로 '불교

는 너무 짙기 때문이다.

불교대학 내 응용불교학 전공이 있고 인문한국(HK)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했지만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이 아직 미흡하다. 특히 HK사업은 10년 한시 사업으로 100%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대학에 머물 수 있는 연구 인력 장원이 한정적이라보니 전문 인력이 활용될 곳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조성택 교수는 “동국대를 제외하고 나면 전국에 불교 학자를 필요로 하는 정원이 10곳이 안 된다”면서 “불교 종립대와 중단들의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불교학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6·7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화엄만다라의 주인공은 사부대중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재주가 부처님의 제자 중 제일이었다. 길 위에 나선지 20년, 현대불교는 신문의 부루나 존자가 되기를 제2의 원력으로 세우고 다시 한 번 점검의 자리를 뒀다. 그 자리는 화엄을 꿈꾸는 자리이고, 만다라를 그리는 자리일 것이다. 사진은 2012년 9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화엄만다라'를 장엄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현대 불교신문은 앞으로 더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문서포교 제일의 부루나 존자가 될 것을 독자 앞에 서원한다.

문서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전법의 길을 나섰던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기로 서원했으니 현대불교신문 역시 부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 부처님의 심대제자 중 부루나 존자는 영민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재주가 부처님의 제자 중 제일이었다. 길 위에 나선지 20년, 현대불교는 신문의 부루나 존자가 되기를 제2의 원력으로 세우고 다시 한 번 점검의 자리를 뒀다. 그 자리는 화엄을 꿈꾸는 자리이고, 만다라를 그리는 자리일 것이다. 사진은 2012년 9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화엄만다라'를 장엄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현대 불교신문은 앞으로 더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문서포교 제일의 부루나 존자가 될 것을 독자 앞에 서원한다.

박재환 기자

## 동국대, 대학평가 '11위'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2단계 상승 역대 최고 평점

### 108주년 기념관 불사 선포식도

동국대가 10월 6일 발표된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핵심 지표인 국제화 3위(전년 4위), 평판도 15위(전년 17위), 교수 연구 18위(전년 19위), 교육여건 및 재정 23위(전년 26위)로 전 분야에서 고른 순위상승을 이끌어냈다. 동국대는 2008년 29위에서 매년 꾸준히 순위상승을 이뤄내며 올해 11위까지 상승해 국내대학 중 가장 성공적으로 대학 체질을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국대는 또 신공학과·산학협력관을 준공하는 등 이공계 인프라를 세 배 이상 늘려 2005년 44위였던 순위를 2010년 17위, 2012, 2013년 13위로 끌어 올렸다.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제화 평가로 외국인 학생 수나,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외국인 교수 수, 영어강의 등에서 동국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화를 자랑했다.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여건 및 재정분야도 지난해 26위에서 23위로 올랐다. 불교계의 기부가 이어져 지난해 기부액은 역대 최고인 309억원을 기록했다. 기부자 수도 크게 늘어 6,6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10월 8일 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외장 밀운, 원로의원 중하 스님 등을 비롯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주요 내빈과 총동창회, 불교대학원 등 대학 동문 5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 특집- 48면 발행

<b>A</b> 시방세계 · 2014 서울 전통사찰 WEEK	5
특집1 · 불교, 人文과 通하였는가	6·7
20주년 각계 축하메시지	9·10
현대불교신문 20년 발자취	11
현대불교신문 20년 20대 뉴스	12

<b>B</b> 특집2 · 불교의 생활화 현대와 세계화	1~4
특집3 · 불교언론 방향	5
특집4 · 가족신행공동체	7~9
현대불교와 나	15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원해주신 제방 스님들과 독자 제현에게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앞으로도 불행종포와 한국불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졸속 행정'

### 유은혜 의원 국정감사서 비판

문화재청이 8월 발표한 '문화재 특별종합 점검'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10월 10일 '문화재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 종합점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제 점검까지 졸속으로 실시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절기에 점검을 진행 한

점과 문화재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실측보고서, 수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생략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중 하나로 문화재 부실 관리 근절을 말하자 부랴부랴 실시한 졸속·부실 조사”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 불국사

주지 성타

관학선총기교	장장무희무	증덕중무희무	상민우중희무	재사포호사회신도회장	무회교법서계신도회장	천민요천빈명숙	중성각정성이영숙
--------	-------	--------	--------	------------	------------	---------	----------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립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립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